

광주·전남, '빅3 광역단체' 도약... 지속가능성 등 풀어야

40년 만의 행정통합으로 가정 '광주·전남 특별시'가 연간 예산 25조 원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국내 빅3 광역단체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320만, 예산 25조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의 '슈퍼 지자체'로 연착륙하기 위해선 지속가능성과 불이익 배제, 자원 조달 방식 등 담보하고 풀어야 할 과제 적지 않다.

◆정부 "연간 5조원·서울시급 위상" 약속

김민석 총리가 16일 밝힌 행정통합 특례의 핵심 골자는 4가지. ▲파격적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이다.

단언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지원.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가정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주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구성해 실질적 지원을 국가가 보증키로 했다.

김 총리 좌우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도열한 점도 '부처 칸막이'를 없앤 강한 협업의 의지로 읽힌다.

통합 지자체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이 부여된다. "단순히 규모만 커지는 게 아니라, 행정적 권한과 위상이 대폭 격상된다"는 게 총리의 설명이다. 차관급 부단체장 4명도 둘 수 있고,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운영된다.

또 내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우선 배려하고 이전기관은 지역 산업 여건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시로 넘기고, 총리실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은 물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 감면 등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특구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 사용료 감면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기획발전특구 수준의 세계 해택과 인·허가 간소화에 더해 규제를 우선 정비하는 일괄 처리기구를 별도 설치키로 했다.

◆광주시·전남도·지역 정치권 '환영' 강기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

정부 "연간 5조원 4년 동안 최대 20조 지원·서울시급 위상" 약속 광주시 "퍼스트 펙권" 전남도 "멋진 출발 기대", 정치권도 "환영" 재원·특례·지속성·이전기관 범위·지자체 위상·공직 선발 등 숙제

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의 새 방향을 여는 '퍼스트 펙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발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김영록 지사도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멋지게 출발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반겼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방 위기와 산업 부족, 인구 감소를 광역통합과 도약으로 해결하는 의지가 정부 약속으로 확인됐다"고 환영했고,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정부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인센티브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집중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통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원·특례·지속성·이전기관 범위·지자체 위상·공직 선발 등 숙제
장밋빛 청사진 속에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재원의 구조다. 즉, 인센티브로 신설되는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3대 국제 일부는 지방에 이양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교부 성격인지 명확치 않다. 전자는 자립형 재정 구조, 후자는 정부 보조형 지원인데,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다" "일정 비율로 섞이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특례가 어디까지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특례는 모두 300개. 대전·충남보다 43개 많다. 조직·인사에서 재정·세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치경찰·영재학교·농어촌학교 지원·산단 지정·혁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특례 중 일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이다.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은 "특별법 안에 어떤 특례를 우선시해야 할지 광주와 전남,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내부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성도 키워드다. 광주시의회 고위 관계자는 "10년~20년 매년 수 조원을 예상했던 기존 특별법의 축소판으로, 항구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다보니 제도적으로 국제 이양을 이뤄낼 수 있는지, 핵심은 지속가능성일 것 같다"고 말했다.

명칭 논란과 맞물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위상 하락과 '도시 쏠림' '빨대 효과'를 걱정하는 전남 '미니 지자체'의 우려도 넘어야 할 산이고, 반도체·철도·신재생 에너지 등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방향도 세부조정이 필요하다. 광역의회 통합과 의원정수 불균형 해소, 통합의회 청사 위치와 직원들의 동요도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분 변동에 따른 인사 불이익과 근무지 변경을 우려하는 공직 내부 분위기도 꼼꼼히 추스리고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 관계자는 "이제는 입법 타임"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기대와 우려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담아내 최적의 법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재원 구조와 지원 기간, 특례 실효성, 공공기관 이전 범위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뉴스



제155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등 광양만권 현안 논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곤, 이하 광양경제청)은 1월 16일 광양경제청 상황실에서 제155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의회(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를 개최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현안업무 및 역점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양경제청은 2026년도 핵심 목표로 △ 투자유치 2조 4천억 원 △ 기업 37개사 유치 △ 일자리 1,270명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수소산업을 비롯한 핵심 미래성장산업과 소재·부품, 물류·제조 분야의 유망 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유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6여성세계세미나와 연계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광양만권의 글로벌 인지

도를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물놀이장을 운영해 여름철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기업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의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고, 여수 경도·화양지구와 하동 두우단지 조성 등 주요 레저단지 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중곤 광양경제청장은 "조합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2026년에는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주요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이상기후에 '토마토 역병' 비상... 나주 농가 피해 확산 최명수 도의원, 16일 현장 간담회서 제도적 지원 필요 강조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병해가 확산하면서 전남 나주 지역 토마토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겨울철 큰 일교차와 높은 습도 등 기후 변화가 겹치며 토마토 역병이 발생해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8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 세지면 일대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일마름병(역병)이 올해 처음 발생해 현재 4개 농가, 약 1만4814㎡ 규모의 재배 면적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세지면에는 지난 2020년 27개 농가가 참여한 '새콤달콤 방울토마토 작목반'이 구성돼 공동 재배를 이어오고 있다.

피해 농가들은 지난해 9월 정식 이후 본격 수확기에 접어들던 시점에 병해가 확산하면서 작물 폐기가 불가피해졌다.

작목반 김상기 회장은 "역병 발생으로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작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더 커지면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부채만 떠안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나주시 관계자들은 이번 역병 발생 원인으로 겨울철 큰 일교차와 높은 습도 등 불안정한 기후 여건을 지목했다.

반면 농가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생육 상황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농가 기술 지도, 현장 기술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피해 농가 현장 간담회를 연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은 "이상기후로 농업 현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병·해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농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대응 체계와 제도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